

<2014년 10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마음>은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도 수시로 변한다. ‘자기 환경과 처지’가 바뀌니 변하고, ‘다짐했을 때의 감동’을 잊어버리니 변한다.
2. <인간의 뇌>는 다짐하고 맹세해도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 작동한다.
3. 인간은 신이 아니라서 생각이 변화무쌍하다.
4. 사람은 감동받고 깨달을 때 다짐하게 된다. 고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매일 다짐해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5. <다짐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건하고 변하지 않도록,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간구해 놓아라.
6. 사람은 말할 때나, 느낄 때나, 볼 때나, 들을 때는 감동되어 다짐한다. 그러다 그 후에는 <뇌의 생각>이 흐려지고 <마음>이 약해진다. 그때는 다시 말하고, 다시 보고, 다시 들어야 된다.
7.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다. 그러다 기도가 끝나면 ‘환경과 처지’가 바뀌니, 다짐했던 마음이 약해지고 변한다.
8. 사람은 ‘볼 때’와 ‘안 볼 때’의 생각이 다르다. 고로 자꾸 보라. 자꾸 들어라. 자꾸 기도해라. 자꾸 성자와 교통해라.
9.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가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다짐한다. 그러다가 거기서 나와 세상을 쳐다보면, 다짐했던 마음이 약해지고 변해 버린다.
10.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세상의 비’에 ‘자기 마음’이 점점 젖어드는 줄 모르다가 결국 ‘세상’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 수시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접해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는 꼭 승리한다.
11. 매일 다짐했는데도 못 지키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다. 마음이 병들어서다.
12. <실천하는 것>이 돈이다. 황금이다. 권세다. 사랑이다. 휴거다.
13. <게으른 자>는 얻기를 원해도 ‘눈 구경’이나 하고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에 만족하고 끝난다.
14. 너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너 자신이다.

15.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얻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
16. ‘주’를 속이고 ‘성자’를 속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사탄’이 영원히 속이며 괴롭힌다.
17.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만이 성공한다.
18. 행하지 못하는 자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다. 아직 행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지옥 고통’을 더 받아 봐야 행하게 된다.
19. 행해라. 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행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다. 행하지 않으면, 행함으로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힘들다 하며 머물러 있게 된다. 절대 ‘실천자’만이 승리하게 된다.
20. 너는 어떤 사람이 되려느냐. 나와 같이 ‘실천자’가 되자!